로컬플러스

익산시, 전라선 폐선부지 활용 위한 워킹그룹 가동

익산시가 전라선 폐선부지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시민단체, 대학교수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동익산역의 이전으로 발생한 폐역사부지와 폐철로를 지역 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꾸준한 활동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난 7일 정헌율 익산시장과 워킹그룹 관계자는 폐철길을 함께 걸으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고, 폐역사부지와 폐철로에 가칭 '들녘숲길'을 조성하기로 결정해 많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워킹그룹은 '들녘숲길'이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역전종합시장 한마음축제행사

군산시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오는 11일 오후 1시 군산역전종합시장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한마음축제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군산역전종합시장 상인회가 주최·주관하고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후원한다.

이번 축제는 신명나는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4인조 밴드 공연, 초청가수 공연,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노래자랑은 역전시장 상인회(070-7749-2825)에서 사전접수 및 행사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행사 중간에 경품 및 행운권 추첨이 마련되어 있어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18일까지 청년층 일자리체험 참여자 모집

군산시가 '청년층 공공기관 일자리 체험' 참여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층의 취업능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청년층 공공기관 일자리체험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며, 근무지는 군산시청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에 배치되어 일자리체험을 할 예정이다.

참여자격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선업 관련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와 가족은 우선선발 대상으로 모집기간에 관계없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농협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군산농협(조합장 강춘문)은 지난 7일 힘겹게 겨울을 맞고 있는 홀몸 어르신들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찾아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군산농협 농가주부모임(회장 김춘자)와 고향주부모임(회장 채규숙) 회원들이 지난해 공동수익사업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진행됐다.

연탄 2500장을(150만원상당)구입해 900여장은 20여명의 회원들이 사랑의 릴레이로 직접 배달했고, 나머지 1600장은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를 통해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강춘문 조합장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여성조직들이 나눔에 앞장서줘 고맙다"며 "군산농협 임직원들은 나눔과 봉사를 적극 실천해 우리지역에 소외된 그늘이 점점 없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글로벌 식품시장 도약 기대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은 "'글로벌 식품시장의 新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왕궁면 일원에 추진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8일 오전 11시경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는 232만㎡(70만평) 규모로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3개 공구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2014년 3월에 착공하여 2016년 11월 현재 60%의 공정률에 있으며 완전 준공은 당초 준공기한인 2017년 6월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에도 분양을 희망하는 기업은 언제라도 공장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우선 부지 제공이 가능하다.

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주역이 될 6대 기업지원시설이 지난 10월부터 운영 중으로 입주기업에게 국내 최초로 R&D부터 유통, 수출에 이르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세계적 수준의 장비와 인력으로 R&D 네트워크 중심 수출지향형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산업단지 착공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건강기능식품 생산기업인 BTC와 커피가공 기업인 씨앤씨테그비 등 2개 기업은 이달 중 착공 계획이며, 외국기업으로는 지난 9월 입주계약 체결한 체코의 맥주 생산 기업인 프라하의 골드사가 내년 3월경 착공 할 예정으로 외국인투자신고가 실제투자로 이어진 사례다.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시행기관인 LH공사에서는 산업단지를 2016년 12월에 조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문화재 조사 기간이 연장되고 공사에 참여한 일부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당초에 예정했던 조기 완공이 어려워지는 실정이 발생했다.

국책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준공이 늦어져서 기업투자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익산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과 LH공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일부 지연된 조성공사의 공기를 앞당기고 입주 희망기업의 우선 공장착공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세계 식품시장의 새로운 관문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익산=장양원기자

원광대병원 핵의학과 김명현 임상교수

대한핵의학회 후지필름 학술상 수상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은 핵의학과에 재직중인 김명현 임상교수(사진)가 대한핵의학회 후지필름 학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김명현 임상교수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개최된 제55차 대한핵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엽산 수용체 표적 분자영상제제로서 Tc-99m 표지 엽산 펩타이드 화합물의 합성과 종양마우스 모델에서의 영상 평가 (Synthesis and Evaluation of 99mTc-Labeled Folate-Tripeptide Conjugate as a Folate Receptor Targeted Imaging Agent in a Tumor-Bearing Mouse Model)"란 주제의 논문으로 후지필름 학술상을 수상했다.

후지필름 학술상은 대한핵의학회 영문학회지(Nuclear Medicine and Molecular Imaging)에 게재된 1년간의 논문들 중에서 그 학술적 우수성이 가장 뛰어난 논문의 저자에게 수여되는 학술상이다.

본 상은 핵의학과 김창근 교수 연구팀이 관련 연구를 지속하며, 2014년 대한핵의학회 젊은연구자상 수상 및 2016년 국내 특허등록에 이은 세 번째 성과이다.

이번 연구는 다수의 암에서 과다 발현하는 엽산 수용체를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분자영상제제를 개발하고 그 유용성을 평가한 것이다.

최근 암 진료의 환자맞춤형 정밀 의학의 흐름에 적합한 핵의학 분자영상 진단제제를 개발함으로서, 그 연구 가치를 높게 평가 받아 본 상을 수상했다.

김명현 임상교수는 2006년 을지의대를 졸업, 2014년 원광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2016년 핵의학과 전문의 취득 후 원광대학교병원 핵의학과에 재직하며 환자 진료 및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간여행축제 대표축제추진위원회 개최

주민대표 · 전문가 · 관광분야 교수 구성 평가 · 발전방안 모색

군산시가 '2016 군산시간여행축제'의 평가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대표, 전문가, 관광분야 교수로 이루어진 대표축제추진위원회를 지난 7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린 '2016 군산시간여행축제'는 교육적 가치가 높고 나아가 관광형 축제로 충분히 성공 가능하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스토리가 있는 퍼포먼스로 생동감을 보여준 '3.5만세 퍼레이드'와 의례적인 개막식 형태를 벗어난 스토리텔링형 개막식,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먹거리 부스, 어린이 독립군 체험, 쫓고 쫓기는 각시탈 등이 좋은 평을 받았다.

개선사항으로 운영요원들의 전문교육, 타 축제와의 홍보·마케팅 연계, 안정된 축제운영 조직체계 구성, 원도심과의 연계성 확대 등이 요구됐다.

또 대표 콘텐츠의 선택과 집중,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야간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주변 시설물들과의 연계성 확대, 축제 시기를 타 행사와 조화롭게 정할 것, 밀착 대면홍보 등 효과적인 홍보방안 강구, 축제 개선사항의 환류를 위한 시스템 정비 등이 도출됐다.

이와 함께 군산시간여행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독립군 열병식 체험' 등 차별화된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2017 군산시간여행축제에 지양분이 될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됐다.

대표축제추진위원들은 "풍부한 근대문화유산의 도심관광 자원을 활용한 축제"라는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축제의 체계화·전문화 및 연속성 있는 축제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조언과 더불어 축제 콘텐츠 구성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도 주문했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성과는 더욱 강화하고 문제점은 보완해 타 축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시간여행축제만의 특별한 경험을 관광객에게 제공하고자 한다"며 "연말 전라북도 및 중앙부처 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해 문화관광축제에 진입하겠다"는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호원대 자동차기계공학과 3D프린팅 동아리

'전북 메이커스 경진대회' 대상 · 금상 수상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자동차기계공학과(학과장 서충길)는 자동차기계공학부 3D프린팅 동아리 2개 팀이 '2016 전북 메이커스(DIY) 경진대회'에 참가해 대상과 금상을 수상했다.

'2016 전북 메이커스 경진대회'는 전라북도,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최하고, 창업보육센터협의회 등 4개 기관이 주관, 창업진흥원, 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4개 기관의 후원으로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청년들의 무한 상상이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3D 프린터 등 손쉬워진 디지털 기술을 응용해 필요한 물품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창의 계층의 의욕고취 및 관련 산업 활성화와 대중화는 물론 개발자인 메이커의 창업과 사업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됐다.

호원대학교 자동차기계공학과 3D프린팅 동아리 '3D 라온'은 A팀과 B팀으로 구성되어 각각 '이중 주차 이동 보조기구(Easy Moving)'와 '양쪽 물병(Half Bottle)'을 출품했다.

총 35개 참여 팀 중 A팀이 대상인 전라북도지사 특별상을, B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특별상을 수여받았다.

A팀(지도교수 정의봉)의 '이중주차 이동 보조기구(Easy Moving)'는 이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킬 때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힘들이지 않고 바퀴를 굴려주는 장치로, 이 작품은 평소 어머니께서 이중 주차된 차량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개발했다.

B팀(지도교수 원종운)의 '양쪽 물병(Half Bottle)'은 한 개의 물병으로 두 가지 음료를 담아 휴대성을 높인 작품으로 물병의 입구부터 내부까지 각각 분리시킨 것이다.

이 작품 또한 일상생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좋아하는 음료 두 가지를 한 병에 담아 휴대할 수 없을까하는 아이디어를 통해 개발됐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립도서관, 16일 부터 인문학 특강 운영

군산시립도서관은 인문학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생활 속 인문학을 활성화시키고,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내달까지 총 4회에 걸쳐 인문학 특강을 운영한다.

첫 특강은 오는 16일 저녁 7시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노명우 교수의 '불안의 시대, 세상물정을 안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현대인의 삶과 일상의 문제를 고민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이치와 지혜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23일에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페미니즘의 도전' 등을 쓴 정희진 여성학 박사의 '인문학과 자기성장'이라는 주제로 인문학은 무엇인지, 인문학과 여성주의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 12월 2일에는 최근 '화가의 마지막 그림'을 펴낸 이유리 작가가 인종차별에 대한 예술, 동물 해방을 다룬 예술, 노동자들과 연대한 예술 등 '을'에 관한 작품을 소개하고 메시지를 담아 '을의 편이 된 예술가들'을 강연한다.

마지막으로 12월 9일에는 대한민국 대표 시인 중 한명인 안도현 시인이 '시가 생기는 시점'이라는 주제로 인문학 특강을 실시, 시인의 대표적인 시 감상을 통해 시와 친해지는 법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김홍식 군산시립도서관장은 "배움의 공간인 도서관에서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미술과 문학에 대한 소양과 안목을 넓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

인문학 특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unsa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전화(063-454-5630), 방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 관한 조례' 시행

군산시가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 일부를 변경하는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지난 10월 31일자로 공포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정구역 일부 변경은 택지개발 및 도로신설 등으로 새로운 경계획정이 필요한 지역과 1개 필지나 공장 등이 2개 이상의 읍면동으로 나눠져 있는 지역 등 일제조사를 거쳐 타당성 검토 및 주민의견조사 후 최종 결정됐다.

한 필지에 2개 읍면동이 걸쳐져 있던 지역 일부를 조정하고, 법정동의 경계가 건물을 관통하고, 공장이 2개 동으로 나뉘어져 불편을 겪던 지역에 대해 단일동으로 경계를 조정 했다.

또한 농지 재정리지역 경계와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총 9개동 12개 지역에 대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변경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가 변경되면 주민들의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재산권 행사 및 주민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 관리가 용이해지는 등 행정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구역과 관련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 주요업무 결산 보고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가 2016년도 제198회 임시회 개회중 '201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고 연초 보고한 업무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동연)의 업무보고 요약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재해구호 사업 특성상 최근 겨울철이 빨리 돌아와 어려운 분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10월말까지 결정 완료하여 지급될 수 있기를 당부하고, 최근 언론보도에서 아동급식 원재료 등의 문제가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점검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인원증가 요구 등을 통하여 우리시가 복지 우수도시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거듭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BTO 소송관련하여 대화의 창을 열고 무엇이 합리적인 방향인지를 도출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악취해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인력부족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집중기간에는 상황실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적인 민원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